고구려 백제 문양에 종려나무 등장?… 오류 잡아야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팔메트와 반 팔메트→제3영기싹 영기문 ㊦



'반 팔메트' 개념이 혼란 부추겨

지금까지 '인동당초문'과 '팔메트'를 다루고 있는데 어차피 용어가 틀린 것이지만 결국 두 가지가 한 가지 영기문, 즉 '제3영기싹 영기문'을 다루고 있음을 아시겠지요? 이상한 것은 우리 학계가 따르는 일본의 문양집을 보면 같은 문양을 다루면서 주제어(主題語)의 항(項)은 따로 있다는 점이다. 인동을 팔메트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우대칭의 팔메트'가 있고, 그 팔메트를 절반을 나눈 '반(半) 팔메트'라는 것이 있다. 모든 학자들은 좌우대칭(左右對稱)의 팔메트를 절반으로 자르면 반 팔메트로 된다고 믿고 있다. 언뜻 보면 그럴 듯하다.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반 팔메트(half palmette) 조형은 서양에는 매우 드물지만, 동양 3국에는 좌우대칭 팔메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변화도 많다는 것이다. 좌우대칭의 형태는 동서양이 각각 영기문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인 '확산'을 표현하려면 그와 같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반 팔메트란 무엇인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이 '반 팔메트조차 인동문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 오류에 빠지면 계속하여 오류에 빠지는 법이다. 그러면 반 팔메트란 무엇인가? '반 팔메트도 제3영기싹 영기문'이다. 반 팔메트의 조형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그림①) 언뜻 보면 좌우 대칭의 팔메트를 수직으로 절반 자르면 반 팔메트 같이 보인다. 그러나 내가 그린 조형의 전개원리를 보면 두 가지는 별도의 영기문으로 각각 제3영기싹임을 알 수 있다. 즉 좌우대칭(左右對稱)의 팔메트는 '좌우대칭의 제3영기싹'이며, 반 팔메트는 '비대칭(非對稱)의 제3영기싹'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오회분 4호 묘의 벽화에는 다음과 같은 도상이 있다.(그림②-1) 그 유려한 곡선의 6각수문(六角水文) 안에 제2영기싹이 생기며 그 갈래 사이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하는 형태가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팔메트라 부르는데 왜 하필이면 고구려 벽화에 서양의 팔메트 즉 종려나무가 표현된다는 말인가! '영기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확산하는 영기를 구상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즉 제3영기싹의 조형임을 새로이 채색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그림②-2)

그런데 그 벽화에 다른 도상을 보면 마치 그것이 갈라져서 사이에서 신선(神仙)이 화생하는 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벽화에서 하얀 연꽃만 보여서 연화화생(蓮花化生)만을 볼 뿐이지, 근원적으로 제3영기싹 양 갈래 사이에서 영기화생(靈氣化生)하는 광경을 보지 못한다.(그림③-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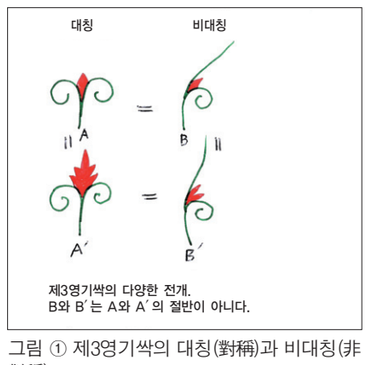
즉 양 쪽의 것을 반 팔메트라고 부르는 한, 아무 것도 읽어낼 수 없다. 그것을 내 방법대로 채색분석해 보면, 그 두 갈래 조형은 '독립적 제3영기싹 영기문(靈氣文)'이므로 갈래 사이에서 두 개의 잎 같은 만물 상징(주홍색)이 나오고, 자체에서 빨간 색을 칠한 영기싹 즉 생명의 싹이 나오지 않는가. 그 두 개의 제3영기싹의 갈래 사이에서 비로소 연꽃이 화생하고 그 연꽃에서 신선이나 여래가 화생하고 있는 도상임을 알 수 있다.(그림③-2)

강력하게 발산되는 에너지의 표현

전체를 살펴보면 유려한 곡선이 상징하는 '물'이란 근원적인 생명생성의 근원에서, 신선이나 여래가 화생하는 광경이다. 나의 많은 논문에서 이미 불화(佛畵)의 주인공인 여래나 보살이 물에서 화생한다는 기본 틀을 발견하여 논증한 바 있다. 바로 그런 도상을 가장 압축하여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림②-1이나 그림③-1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림②-1과 ③-2의 조형에서 각각 절반을 잘라서 살펴보면 서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④-1을 보면 절반의 조형은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나, 그림④-2는 절반으로 잘라도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7세기 일본의 백제관음의 보관을 살펴보자. 그 유명한 백제관음의 보관은 단지 머리에 쓰는 모자가 아니다.(그림⑤) 보관은 여래나 보살로부터 발산하는 영기를 그렇게 갖가지 영기문들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도 이미 논문들에서 밝힌 바 있다. 그 도상을 채색분석해 보면 제1영기싹과 제3영기싹의 다양한 조형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팔메트가 아니다. 어찌하여 백제 관음의 보관에 종려나무가 있단 말인가! 보관 정면 가운데에 화불이 있고 아래로 제1영기싹이 좌우로 나와 다시 위로 오르며 화불은 감싸고 있는데, 그 모두가 제1영기싹이 연이어 있는 조형이다. 그 좌우로 제3영기싹들이 힘차게 뻗쳐나가지 않는가! 화불과 관음은 하나다. 근본적으로 관음보살로부터 강력하게 발산하는 영기를 그런 만물생성의 근원인 제3영기싹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관 좌우에서도 제1영기싹과 제3영기싹들을 찾아 채색하니 반 팔메트가 더욱 어처구니없는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동양의 영혼을 서양의 오류로 더럽힐 수 없다. 보관 띠의 영기꽃마저 로제트라 부르고 있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제3영기싹의 다양한 전개.
B와 B′는 A와 A′의 절반이 아니다.

그림 ① 제3영기싹의 대칭(對稱)과 비대칭(非對稱)



그림②-1 회분 4호묘, 6각의 양 변에서 영기가 강렬하게 생겨나고, 중앙에서는 제3영기싹이 생겨난다.



그림②-2 채색분석



그림 ③-1 5회분 5호묘, 신선의 영기화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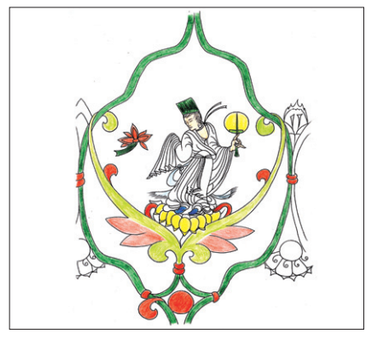


그림 ③-2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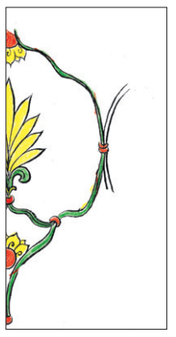


그림 ④-1 절반은 자르면 독립된 조형으로 존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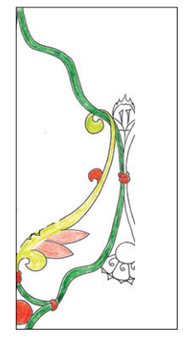


그림 ④-2 이번에는 절반으로 자르면 독립된 조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



백제관음보관의 전개형 팔메트, 보관띠에 로제트 法隆寺 飛鳥(아스카)시대

① 영화된 연꽃에서 제 1영기싹(面) 좌우로 뻗치고
② 거기에서 각각 제 1영기싹(線) 연이어 올라감
③ 그 양쪽으로 긴 제 3영기싹 영기문이 발산. 길게 뻗침.
⑧ 보관 좌우에서 제1 영기싹과 제3 영기싹을 찾아 채색해보니 좌우대칭이 아니다.

그림 ⑤ 백제관음 보관 채색분석.

藥이 되는 사찰음식

쫄깃한 면발 생각나면 콩국수 한그릇 '후루룩'



세 가지 맛 콩국수

△재료(4인 기준)

○ 완두콩물 - 완두콩 2컵, 물 8컵
○ 흑임자콩물 - 대두 1컵, 흑임자 1/2컵, 물 4컵
○ 잣국물 - 잣 2컵, 물 4컵
○ 삼색소면, 오이, 청홍피망

△만드는 법

① 완두콩물 - 말린 완두콩은 깨끗이 씻어 2~3시간 불린 후 껍질을 벗긴 다음 물을 붓고 10분 정도 삶아 뜸을 들인 후 식혀서 제물에 곱게 갈아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② 흑임자콩물 - 대두는 깨끗이 씻어 2~3시간 불린 후 껍질을 벗긴 다음 물을 붓고 10분 정도 삶아 뜸을 들인 후 식혀서 흑임자를 넣어 제물에 곱게 갈아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③ 잣국물 - 잣은 껍질을 제거한 후 마른 수건으로 곱게 닦은 다음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물을 부어 곱게 갈은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④ 소면은 끓는 물에 삶아 얼음물에 헹궈 사리를 지어 놓고 오이, 홍피망은 곱게 채썰어 고명으로 얹는다.

열무오이소박이 물김치

△재료(4인 기준)

○ 오이 4개, 열무 200g, 무 100g
○ 김치양념 - 소금 1큰술, 국간장 1큰술, 고춧가루 3큰술, 홍고추 3개, 배 100g, 다진생강 1/2큰술, 찹쌀풀 5큰술



○ 김치국물 - 물 3컵, 다시마 1장, 소금 1/2큰술

△만드는 법

① 오이는 5cm 길이로 잘라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은 후 소금물에 살짝 절인 후 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② 열무는 4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소금물에 절인 후 헹궈 물기를 뺀다.

③ 무는 채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수분을 뺀다.

④ 김치국물은 다시마를 넣고 연하게 우러나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끓인 후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식힌다.

⑤ 김치 양념의 재료는 모두 곱게 갈은 후 찹쌀풀을 넣어 잘 섞는다.

⑥ 양념에 속재료인 열무와 무를 넣고 버무린 후 오이에 채워 넣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식힌 국물을 붓는다.

콩국수에 열무오이소박이면 '진수성찬'

시원한 국수가 입맛을 당기게 하는 요즘, 맛도 영양도 좋은 여러 가지 콩물에 쫄깃한 면발을 넣어 한 그릇 말아 먹게 되면 더위가 저만치 달아나는 느낌이다. 게다가 잘 익은 열무오이소박이 한 입 베어 무는 그 맛은 잘 갖춘 진수성찬에 비할까 싶다.

여러 가지 콩물의 재료로 쓰이는 대두나, 잣, 완두콩, 흑임자 등은 단백질과 양질의 불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면요리가 갖는 영양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단, 콩물을 만들 때는 콩을 너무 오래 삶으면 메주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10분 정도 삶은 후 뚜껑을 열지 않고 10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식혀 제물에 갈아서 먹어야 고소한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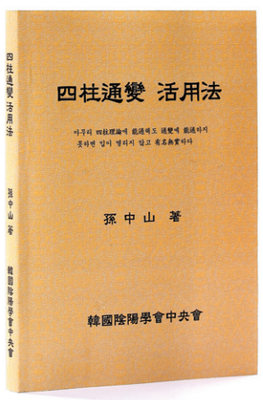
열무오이소박이는 오이와 열무가 주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좋은 제철 김치로 오이는 이뇨효과로 부기를 빼고 몸을 맑게 해준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화제의 신간!

新刊 四柱通變 活用法

(四柱는 理論보다 通變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주이론에 능통하다해도, 사주를 놓고 통변에 능통하지 못하면 입이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하다. 옛날부터 통변에 관한 해설이 다양하게 전해져 왔지만, 이를 바르고 쉽게 설명한 책은 드물다. 논어를 읽고도 논어를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명리학을 공부하고도 통변을 몰라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본서는 사주통변의 핵심을 수록한 것으로 십신통변의 활용법과 통변의 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운명과 성격, 육친관계, 직업 및 건강에 미치는 인사전반의 작용을 질서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정독 이해하게 되면, 역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사주감정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 자부하는 바이다.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孫中山 著 (316쪽 / 값 30,000원)

책자 신청 053)324-2468 / 010-9391-5699

아래계좌로 입금하시면 우편물 속달로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2-0585-5250-53 (예금주 손상용)

"투병 중에도 염불 · 독경하던 아흔의 엄마는 나의 선지식이자 관세음보살님이었다"



우란분절 법보시 특별할인!

나의 선지식 엄마의 사계절

도정 지음

신국판 | 2도칼라 | 152쪽 | 10,000원

정념선원 도정 원장이 쓴 우리 시대의 '부모은중경'

'우리 시대의 효경이자 부모은중경'으로 권해드리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된 가족의 의미를 되살려 효도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_정병국 국회의원

도정님이 쌓아온 수행의 길 25년, 아흔의 엄마를 향한 효 실천 수행의 3년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참 수행의 길, 생활 속의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다. _민병두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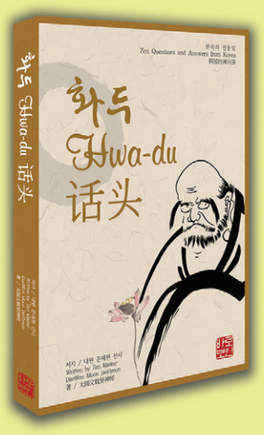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31-534-3373 / 010-9043-1016 바른법